

[사회]

■ 생활환경 실태 조사 2題

송전선로 인근 학생 자기장 노출 최고 21배

발암 억제 멜라토닌 분비량은 낮아

송전선로 인근 학교 학생들의 자기장 노출량이 일반 학생들보다 최고 18~21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발암억제 호르몬인 멜라토닌(melatonin) 분비량도 비송전선로 주변 학생들보다 낮아 송전선로 자기장에 의한 인체 유해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송전선 주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교 내 자기장 노출량은 0.70마이크로테슬라(자기장 세기 단위)로 비송전선로 학생들의 자기장 노출량 0.04마이크로테슬라에 비해 18배 가량 높다. 자기장은 자력이나 전력선 주변에서 발생하는 파동을 말하며 지나치게 높을 경우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전선로 주변 학생들의 교내 자기장 노출량 0.70마이크로테슬라는 일부 선진국들의 자기장 노출량 권고치인 0.3~0.4에 비해 2배 가량이다. 송전선로가 학교 옥상 위 30m 지점을 지난다고 가정할 경우, 자기장 노출량은 약 0.3마이크로테슬라로 컴퓨터 모니터에 몸을 바짝 붙여(0cm) 사용할 때 나오는 전자파의 세기와 맞먹는다. 교실 내 자기장 노출량은 송전선로 주변 학생들이 21

▲멜라토닌(melatonin)=척추동물의 간뇌(間腦) 등면에 분비되어 있는 송과선(松果腺)에서 생성·분비되는 호르몬. 멜라토닌의 농도가 높을 때는 생식세포의 발달을 억제하고 낮을 때는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배 높고 운동장에서는 7배, 자택에서는 4배, 통상적인 활동 중에는 3배, 가전제품 사용시 2배, 수면 중 5배, 학원 다닐 때 3배 등으로 파악됐다. 송전선 주변 학생들의 24시간 자기장 평균 노출량은 0.24마이크로테슬라로 비송전선로 주변 학생들의 평균 0.04에 비해 6배 높다.

발암 억제물질로 알려져 있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량은 송전선로 주변 학생들이 2.06나노그램으로 비송전선로 주변 학생들 2.11나노그램보다 낮았다.

또 전기장판을 사용한 경우의 멜라토닌 분비량은 평균 2.02나노그램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2.10나노그램보다 낮았다. 현재 국내에는 초등학교 10곳과 중학교 7곳 등 학교 30곳이 송전선로 자기장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서 사용 전자제품 중 러닝머신 전자파 최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전기제품 중 러닝머신의 자기장(전자파) 방출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환경부와 한양대 연구팀에 따르면 16개 가전제품에 대한 자기장 방출 조사결과 러닝머신 운동시 자기장 방출량은 948.7mG(밀리가우스·자기장 세기 단위)로 전기 면도기 사용시 2.4mG에 비해 470배 높았다. 이는 컴퓨터 모니터를 몸에 바짝 붙여 사용할때 보다 47배, TV 바로 앞보다 4.3배 가량 각각 더 높은 수치다. 가전제품을 몸에 바짝 붙여(0cm) 사용할 경우 자기장 방출량은 ▲전자렌지 443.1mG ▲진공청소기 309.

1mG ▲헤어드라이어 275.8mG ▲TV 219.4mG ▲세탁기 116.9mG 등이었다. 하지만 ▲전기장판 87.6mG ▲냉장고 36.7mG ▲에어컨 31.8mG ▲탁상용 스탠드 28.2mG ▲오디오 23.6mG ▲컴퓨터모니터 20.6mG ▲감치냉장고 14.4mG ▲선종기 13.9mG ▲안마기 5.1mG ▲전기면도기 2.4mG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선진국들의 경우 가전제품 자기장 방출량 권고치를 3~4mG 이내로 잡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813mG 이내로 내부 권고치를 정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전문대 3년제 학과 설치 자율화

전공심화과정 이수자 학사학위 수여 추진

전문교육 확충을 증진하는 전문대학의 경우 3년제 학과를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전문대에 설치된 전공심화과정을 마치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전문대학의 경쟁력 및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3년제 학과 설치 자율화 기준을 고시하고,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게 학사학위를 줄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이수자(2007년 42%, 2010년 50% 이상)를 충족하는 대학은 2007학년도부터 3년제 학과를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3년제 학과를 설치할 경우 기존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당시의 수업연한을 적용하고 3년제 학과 신설로 전체 정원이 늘지 않도록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전문대 졸업 이후 산업현장에서 1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은 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전공심화과정을 마치면 학사학위를 주기로 했다. 2005년 현재 13개 대학 78개 과정에 1천642명이 전문대 전공심화과정을 밟고 있으나 그동안 학위를 주지 않아 활용되지 못했다.

전공심화과정 수료자에게 학사학위를 주면 연간 1만9천여명에 달하는 전문대생의 4년제 대학으로의 무분별한 편입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한석수 전문대학정책과장은 "전문대학을 마친 뒤 산업현장에 진출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산업현장의 직무훈련 수요를 교육과정에 반영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불법 고리사채 연말까지 집중 단속

대검찰청은 올 연말까지 경찰·노동부·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고리사채업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검은 또 폭력 조직과 지역 토착세력인 유흥업소·대리운전업체·퀵서비스 업체 등을 직접 경멸 또는 지원하거나 다단계금융업 등 불법 자금유입과 속칭 카드깡에 연계된 단서가 드러나면 직접 일선 검찰청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공구지검은 대검 지시에 따라 지검과 산하 목포·해남·장흥지청에 강력

전담(마약조직폭력부) 부장검사가 위원장인 '생계침해형 부조리 지역대책협의회'를 만들어 지역 실정에 맞는 단속 대상을 선정, 유관 기관과 공조해 상시 수사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올해를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의 해'로 정하고 금품 갈취·임금 착취·과다소과료·불법 직업소개·취업사기·성희롱·불공정계약·불법사금융을 8대 생계침해형 부조리로 정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영터리 통계 조사 공무원 해임 정당

국가 통계조사를 수년 간 영터리로 작성했다가 해임된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8일 A씨가 통계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 통계조사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원고의 업무태만 행위로 국가경제·국민복지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공무원 A(여·36)씨는 2002년 7월 이후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취업자로 분류하는 등 통계관리에 허술했다가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광주시장 부인 벌금 80만원 선고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8일 공무원들의 식사자리에 참석해 초콜릿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대 광주시장의 부인 정모(56)씨와 모임을 주선하고 식비를 제공한 광주시청 황모(여·56·5급)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기부행위 혐의를 인정,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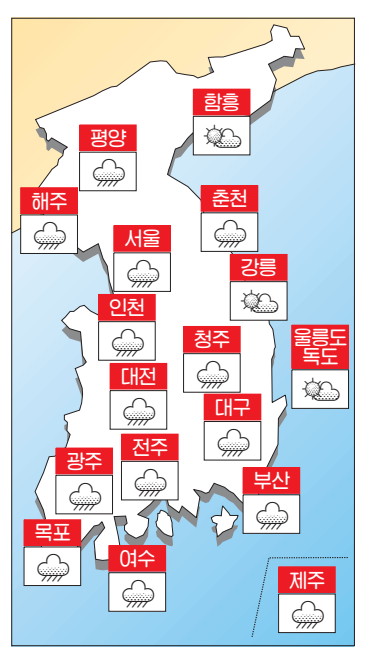
또 선심성 행사를 기획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청 공무원 노모(41)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노씨는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자격(벌금 100만원 이상)이 박탈된다. 하지만 박 시장은 현행법상(당선무효·배우자 벌금 300만원 이상) 시장 직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장맛비 다시 시작 6월 29일 (음 6월 4일) <전국날씨>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차차 흐려져 오후 늦게부터 비가 오겠다.

Table with 3 columns: 지역 (지역), 날씨 (날씨), 기온 (기온). Rows include 서울, 부산, 대구, 광주, etc.



서울날씨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5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5~3.0m 남해날씨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5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1.0~2.5m 목포 밀물 < 04:40 썰물 < 09:59 여수 밀물 < 11:06 썰물 < 05:14

▲해돋이 05:21 ▲해질 19:51 ▲달출 08:24 ▲달질 22:35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Table with 6 columns: 날짜 (날짜), 날씨 (날씨), 최저/최고 (최저/최고). Rows for 30th June, 1st July, 2nd July, 3rd July, 4th July, 5th July.

광주·전남 오늘 5~20mm 비

광주 어제 32.6도 올들어 최고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29일 오후 늦게부터 광주·전남지방에 5~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번 비가 강한 돌풍을 동반하며, 서해남부·남해서부 모든 해상에 2~3m의 높은 파도가 일겠다고 예보했다. 비는 다음달 3일까지 계속되며, 4일 이후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비는 잠시 그칠 전망이다.

장마전선은 현재 중국 양쯔강(揚子江) 유역에서 제주도 남쪽을 걸쳐 일본 규슈(九州)지방까지 넓게 퍼져있다.

한편 28일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32.6도로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남지역도 ▲장성 33.2도 ▲화순 34도 등 30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여수화력 보일러 고장

전력생산 하루 중단

지난 27일 오후 5시13분께 여수시 중흥동 여수화력발전처 발전 2호기 보일러 튜브가 파열돼 전력 생산이 하루동안 중단됐다.

이날 사고는 발전 2호기 보일러 내 물 공급 튜브 1개가 열을 받아 30cm 가량이 찢어져 나가면서 일어났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공장 측은 사고 직후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튜브 파열 부위에 대

해 용접 교체 공사를 벌여 28일 오후 4시에 복구했다.

여수화력발전처는 1호기와 2호기에 시가당 52.8kW의 전력을 생산, 여수화력 발전소(s/w)로 보내고 있다. 여수화력 관계자는 "사고로 전력 생산이 중단됐지만, 기업과 수송가 등의 전체적인 전력 수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밝혔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농활 구슬땀 여름방학을 맞아 농촌봉사활동에 나선 조선대생 450명이 28일 영암군 시종면의 배 과수원에서 봉지 씌우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대학생은 오는 7월1일까지 영암군 미암·신북·시종면의 20개 마을을 돌며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도울 계획이다. /영암=위정환기자 jrwi@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Naeyoung Gosihakwon' (Naeyoung Gosihakwon) featuring 'Eduview' and 'Eduview' logos, and a list of courses for 2007.

Advertisement for '2007년 교원임용고사 대비' (2007 Teacher Recruitment Exam Preparation) with a list of subjects and dates.

Advertisement for 'Naeyoung Gosihakwon' (Naeyoung Gosihakwon) featuring 'Eduview' and 'Eduview' logos, and a list of courses for 2007.

Advertisement for 'Gwangju Gosihakwon' (Gwangju Gosihakwon) featuring 'Gwangju Gosihakwon' and 'Gwangju Gosihakwon' logos, and a list of courses for 2007.

Advertisement for 'Hana Gosihakwon' (Hana Gosihakwon) featuring 'Hana Gosihakwon' and 'Hana Gosihakwon' logos, and a list of courses for 2007.

Advertisement for 'Hanbit Gosihakwon' (Hanbit Gosihakwon) featuring 'Hanbit Gosihakwon' and 'Hanbit Gosihakwon' logos, and a list of courses for 2007.